



삼성 L&T

KIA, '천적' 롯데 경계하라

프로야구 시즌 막판 KIA, SK, 두산의 4강 경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7위 롯데가 '가을잔치'의 초대장을 결정짓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어 주의해야 할 상대 1호로 떠오르고 있다.

4일 현재 KIA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 두산 베어스가 반 경기차 범위내에서 4위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7위 롯데는 4위와 7개임 이상이 벌어져 사실상 포스트시즌 진출이 난망한 상태. 그러나 8개 구단 중 가장 많은 28경기를 남겨둔 롯데는 특히 4강 경쟁팀인 두산과 8경기, KIA와 6경기, SK와 2경기를 치르게 돼 '재뿌리 기 부대'로 등장할 공산이 크다.

롯데는 공교롭게도 시즌 마지막 6경기를 두산, KIA와 치르게 돼 막판 상대팀의 4강행을 결정짓는 '키잡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롯데는 오는 28일과 29일 잠실에서 두산과 2연전을 벌인 뒤 광주로 건너가 30일, 10월 1일, 2일 KIA와 더블헤더를 포함한 4연전을 치른다.

롯데 PO진출 사실상 무산

'우천리그'서 6경기 격돌

4강행 걸림돌 될까 우려

롯데는 무엇보다 최근 5경기에서 무려 36점(평균 7점)을 뽑아내는 무서운 폭발력을 앞세워 상대 팀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KIA의 경우 4강행 경쟁상대인 3개 구단 가운데 올 시즌 기록만 놓고 보면 롯데에 가장 약하다는 점이 악재다.

'전국구 에이스' 손민환(롯데·9승 5패)은 올 시즌 KIA전에 3차례 선발 출격해 3승을 거두는 등 100% 승률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롯데는 KIA와의 상대전에서도 7승 5패로 앞서는 등 유독 '호랑이' 애전 강한 모습

이다.

하지만 서정환 KIA 감독은 보강된 마운드를 발판으로 4강행을 자신하고 있다.

그동안 '부상병동' 이런 비아냥마저 들었던 마운드가 전력 보강되기 때문.

지난달 20일 이후 어깨 통증을 호소해 오던 '토종 에이스' 김진우가 5일 한화전을 통해 복귀했고 그동안 부상으로 2군을 전전하던 선발 장문석과 세업맨 정원도 이번 주말께 1군 무대에 입성할 예정이다.

따라서 KIA는 선발진을 김진우-그레이싱어-장문석-신용운으로, 불펜은 전병두-한기주-정원-윤석민 체계로 꾸려갈 방침이다.

KIA로서는 모처럼 막강 마운드가 구성된 셈이다.

서 감독은 "튼튼한 마운드가 구성된 만큼 4강행의 꿈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승의 의지를 다졌다.

KIA의 새롭게 꾸려진 마운드가 '천적' 롯데를 '독이 아닌 악'으로 바꾸는 처방전이 되길 기대해 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송진우 200승 축하 KIA 팬들에 감사"

한화 송규수 단장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송규수 단장이 송진우(40)의 개인 통산 200승 달성을 축하해준 KIA 팬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송규수 단장은 5일 KIA 구단 홈 페인자리 호사방에 올린 'KIA 타이거즈 팬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KIA 팬들이 송진우 선수 200승 기록 달성을 같이 축하해주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그는 "기록을 달성한 선수가 원정 팀 구장에서 상대팀 팬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받는다는 것은 큰 영광이며 이제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다"면서 "여러분들이 프로야구를 진정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성숙한 관전 문화의 본보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폭죽 등 축하행사를 허락해주는 조남홍 KIA 타이거즈 사장과 정재공 단장, 그리고 KIA 프런트들과 선수단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승엽 '주사 투혼'

무릎 염증 진통제 맞고 팀 합류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정밀 검진 결과 왼쪽 무릎 관절 염증 진단을 받고 염증을 제거하는 소염 주사를 맞은 뒤 팀에 합류했다.

요미우리 계열의 '스포츠호치'와 '산케이스포츠' 등은 5일 인터넷판에서 이승엽이 전날 팀 지정병원인 게이오대학 부속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은 결과 왼 무릎 관절에 염증이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며 진통 주사를 맞은 뒤 팀에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이승엽은 스포츠호치와 인터뷰에서 "아직 부기가 남아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출전하면

무릎 통증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계속 경기에 출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태가 꽤 좋지 못해 매일 상태를 점검한 뒤 출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엽은 지난 3일 나고야돔에서 열린 주니치와 방문 경기 중 심한 통증을 느껴 무릎 검사를 위해 급기 도쿄로 이동해 시즌 두 번째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지바 롯데에서 2년간 활약하던 시절에는 플래툰시스템으로 출장 횟수를 제한되는 바람에 무릎 통증이 나아졌지만 요미우리로 이적한 올해 다시 인조잔디인 도쿄돔에서 매경기 주전으로 뛰다보니 통증이 도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G 야구팀 출발부터 빼걱

김동주 "대회 나가지 않겠다"

'추신수 탈락' 찬반양론 거세

4일 발표된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22인 명단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3회 연속 선발된 김동주(두산)가 곧바로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데 이어 추신수(클리블랜드)가 최종 탈락한 것을 두고 이를 연속 야구팬의 찬반 양론이 크게 엇갈렸다.

미국프로야구 신시내티 레즈와 방문 경기에서 2-4로 뒤집어 8회 상대 선발투수 애런 해링으로부터 동점 우월 투런포를 쏘이울렸다. 시즌 22호 홈런으로 3일 시카고 컵스전부터 3경기 연속 대포 행진. 지난 6게임에서 홈런이 5개나 나왔다.

이로써 본즈는 개인 통산 730개로 이 부문 역대 1위인 헨크 아룬(755개)의 기록에 25개 차로 다가섰다. 샌프란시스코는 본즈의 귀중한 홈런을 앞세워 연장 10회 승부 끝에 5-4로 이겼다.

도 없다. 컨디션도 좋지 않아 아시안 게임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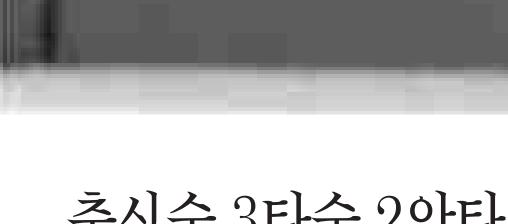
또 이와 맞물려 이병규(LG), 박재홍(SK) 등 국제 대회가 있을 때마다 대표팀에 단골로 뽑혔던 두 선수를 이제는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는 견해도 많았다.

팬들은 드림팀에 5회 이상 출전한 이들을 나라를 위해 '할 만큼 했다'는 생각하는 듯 했다.

추신수의 대표 불발 또한 가공할 폭발력을 지닌 또 다른 뇌관이다. 김 감독과 대표선발 위원회는 "추신수의 실력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제외 배경을 설명했지만 팬들은 이를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실력 검증'이라는 절대 원칙이 극히 주관적이라는 지적이 따嬖았고 메이저리그에서 활동을 일으키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 선수를 뽐지 않는 것은 실수라는 글로 눈에 띄었다.

출범부터 빼걱거리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은 가운데 한국팀이 아시안게임 3연패를 이룰 수 있을지 극심하는 목소리가 크다.



추신수 3타수 2안타

추신수(24·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도하 아시안게임 한국 최종대표선수 명단에서 탈락한 것에 시위라도 하듯 오랫동안 멀티히트를 더뜨렸다.

추신수는 5일(한국시간) 캐나다 토론토 로저스센터에서 벌어진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방문경기에 5번타자 겸 좌익수로 출장해 3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8월 11일 LA에인절스전에서 5타수 3안타를 친 뒤 17경기, 25일만의 멀티히트.

추신수는 2회초 1사에서 상대 선발 션 마컴의 초구를 강타해 우익수 앞 안타로 출루

했다. 4회 1사 1루에서 2-3 풀카운트까지 잤지만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6회에는 선두타자로 나와 브랜든 리그로부터 중전안타를 뽑아냈다.

우투수들을 상대로 안타 1개씩을 뽑아냈던 추신수는 8회 타석에서 좌투수를 맞이해 제이슨 마이클스로 교체됐다.

클리블랜드는 8회 1사 만루 기회에서 추가 득점에 실패해 토론토에 3-4로 졌다.

본즈는 5일(한국시간) 오후 10시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벌어진

현역 최고 홈런왕 배리 본즈(42·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홈런 여정이 드디어 730개에 이르렀다.

본즈는 5일(한국시간) 오후 10시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신시내티 레즈와 방문 경기에서 2-4로 뒤집어 8회 상대 선발투수 애런 해링으로부터 동점 우월 투런포를 쏘이울렸다. 시즌 22호 홈런으로 3일 시카고 컵스전부터 3경기 연속 대포 행진. 지난 6게임에서 홈런이 5개나 나왔다.

이로써 본즈는 개인 통산 730개로 이 부문

역대 1위인 헨크 아룬(755개)의 기록에 25개 차로 다가섰다. 샌프란시스코는 본즈의 귀중한 홈런을 앞세워 연장 10회 승부 끝에 5-4로 이겼다.

본즈는 5일(한국시간) 오후 10시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벌어진

현역 최고 홈런왕 배리 본즈(42·샌프란

시스코 자이언츠)의 홈런 여정이 드디어 730개에 이르렀다.

본즈는 5일(한국시간) 오후 10시 신시

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벌어진

현역 최고 홈런왕 배리 본즈(42·샌프란

시스코 자이언츠)의 홈런 여정이 드디어 730개에 이르렀다.

본즈는 5일(한국시간) 오후 10시 신시

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벌어진

현역 최고 홈런왕 배리 본즈(42·샌프란

시스코 자이언츠)의 홈런 여정이 드디어 730개에 이르렀다.

본즈는 5일(한국시간) 오후 10시 신시

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벌어진

현역 최고 홈런왕 배리 본즈(42·샌프란

시스코 자이언츠)의 홈런 여정이 드디어 730개에 이르렀다.

본즈는 5일(한국시간) 오후 10시 신시

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벌어진

현역 최고 홈런왕 배리 본즈(42·샌프란

시스코 자이언츠)의 홈런 여정이 드디어 730개에 이르렀다.

본즈는 5일(한국시간) 오후 10시 신시

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벌어진

현역 최고 홈런왕 배리 본즈(42·샌프란

시스코 자이언츠)의 홈런 여정이 드디어 730개에 이르렀다.

본즈는 5일(한국시간) 오후 10시 신시

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벌어진

현역 최고 홈런왕 배리 본즈(42·샌프란

시스코 자이언츠)의 홈런 여정이 드디어 730개에 이르렀다.

본즈는 5일(한국시간) 오후 10시 신시

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벌어진

현역 최고 홈런왕 배리 본즈(42·샌프란

시스코 자이언츠)의 홈런 여정이 드디어 730개에 이르렀다.

본즈는 5일(한국시간) 오후 10시 신시

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벌어진

현역 최고 홈런왕 배리 본즈(42·샌프란

시스코 자이언츠)의 홈런 여정이 드디어 730개에 이르렀다.

본즈는 5일(한국시간) 오후 10시 신시

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벌어진

현역 최고 홈런왕 배리 본즈(42·샌프란

시스코 자이언츠)의 홈런 여정이 드디어 730개에 이르렀다.

본즈는 5일(한국시간) 오후 10시 신시